고등학교 한문교과서 내 『論語』의 수록 양상에 대한 연구

김 병 주*

<目 次>

<국문 초록>

본고는 한문교과서 내 『論語』 교육의 위치를 재정립하기 위하여 교육과정별로 고등학교 한문교과서 내 『論語』 經文의 수록양상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이를 통하여 한문교과서 내에서 『論語』의 소단원 구성을 체계적으로 설정하게 하고, 『論語』 교육의 지향점 및 지도방안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여 『논어』 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산문을 수록한 총 84冊의 고등학교 한문교과서를 연구대상으로 삼았으며,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한문교과서 내 『論語』 소단원의 수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각 교육과정 속에 문학류・역사류・사상류 산문이 차지하는 단원을 비교하고, 둘째, 사상류 산문 속에 수록된 『論語』 經文의 소단원 비중을 교육과정별로 파악한 후, 셋째, 『論語』 經文의 수록 내용을 인용한 빈도가 높은 章을 파악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교육과정별 『論語』의 수용 양상은 1, 2차 교육과정에서는 각 교과서

* 공주대학교 한문교육학과 / tjrxks@kongju.ac.kr

www.kci.go.kr

별로『論語』의 소단원 구성 비중 폭의 차이가 높았으나, 6, 7차 교육과정으로 오면서 각 교과서 내『論語』의 소단원 구성 비중이 비슷해졌다. 둘째, 각 교육과정을 막론하고 전 교육과정에서『論語』를 제재로 수용하였고, 사상류 산문 중 소단원 비중이 많게는 15.5%에서 적게는 8.8%로 평균 11.7%로 수록 되었다. 셋째,『論語』는 모든 교육과정에 두루 수록되었으며, 특히, 3차 교육과정에서 인용빈도가 가장 높았다. 넷째, 인용빈도는「學而篇」,「爲政篇」,「里仁篇 , 雍也篇」,「述而篇 , 顔淵篇」,「衛靈公篇」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인용빈도가 높은 章의 내용은 대부분 '君子', '孝弟', '忠信', '實踐' 등의 내용을 통해 공자의 핵심사상인 '仁'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 여섯째, 한 교과서 내에『論語』의 소단원은 평균 약 1.2소단원을 구성하며, 문항 수는 4.9문항의 평균치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에 의해『論語』를 교과서 내 학습내용으로 인용함에 있어서 한문교과서는 교육용 한자 및 지면상의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주제에 따라 분류하고 1소단원 이상의 소단원을 구성하되 인용빈도가 높은 내용을 위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한문교과서, 교육과정, 논어, 산문

Ⅰ. 緖 論

한문교과서 수록된 文・史・哲의 산문영역은 대부분 '선인들의 삶과 지혜, 사상과 감정을 이해하며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한자문화권 내의 상호이해와 교류증진에 기여' 등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는 한문과 교육과정의 최종 목표와도 부합되므로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문학류 산문은 예술적인 산문으로 인간의 삶을 표현하면서 작가의 사상과 감정을 드러내고, 역사류 산문은 인물전기와 야사적인 이야기를 담아내면서 역사적인 사건의 전말과 인간의 고뇌와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 사상류 산문은 새로운 삶의 지향점을 찾고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www.kci.go.kr

이끌어 준다.[1] 이와 같은 한문교과서의 文・史・哲의 산문영역 중 백미는 『論語』라 할 것이다.

『論語』가 『論語』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른 가치관의 확립과 실천의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세기에 걸쳐 『論語』는 그 자체가 사상이 되고 철학이 되고 교육이 되었다. 즉, 우리의 사상・감정과 늘 함께 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현대는 학문의 뿌리라 할 수 있는 『論語』를 도외시 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벽장 속에 들어가야 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고루한 사상정도로 치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論語』는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의 삶과 사상의 저변에 그대로 자리하고 있으며 문학 및 역사의 토대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상황 속에서 한문교과서 내에서 『論語』를 통한 산문영역의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論語』의 위치를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현재 7차 교육과정의 한문교과서 내 산문영역의 내용 구성에 있어서는 저자의 선호(選好)에 의해 수록되어 있어 학습목표와 내용의 관계가 교수-학습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또한, 문법중심의 목표가 주를 이루고 있어 한문교육에 체계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는 산문영역 중 우리나라 한문역사에 있어 초석이라 할 수 있는 『論語』를 주제로 삼아서, 우선적으로 교육과정별로 『論語』 經文의 수록양상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교과서 내 『論語』 교육의 위치를 재정립하여 『論語』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확인하여, 한문교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 따라서 고등학교 한문교과서 내 『論語』 수용양상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향후 한문교과서에 수록될 『論語』 經文을 인용 선정함에 객관적인 기초자료로서의 중요성을 갖으며, 추후 『論語』 교육의 방향 설정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

1)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한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1, pp.68-70.

www.kci.go.kr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한문교과서 내『論語』소단원의 수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각 교육과정 속에 문학류・역사류・사상류 산문이 차지하는 소단원을 비교하고, 둘째, 사상류 산문 속에 수록된『論語』經文의 소단원 비중을 교육과정별로 파악한 후, 셋째,『論語』經文의 수록 내용을 인용한 빈도가 높은 章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1차부터 7차까지 한문교과서 내 수록된『論語』經文을 토대로 향후 한문교과서 내에『論語』의 소단원 및 수록 내용에 대한 방향을 산술적 대표치를 통해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교과서는 산문을 수록한 총 84冊의 교과서를 연구대상으로 삼았으며, 필자가 자료 수집하지 못한 교과서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교과서 내 수록된『論語』의 현상적인 모습을 산술적으로 계산한 것으로,『論語』교육 자체를 산술적 평균치로 계산한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Ⅱ. 교과서 내『論語』의 소단원 수용 현황

이 장에서는 각 교육과정 교과서 내『論語』의 수록 내용을 파악하기에 앞서『論語』가 교과서에서 차지하는 소단원 비중을 산술적 자료로 분석하여,『論語』의 위상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향후 교과서 집필에 있어『論語』를 소단원으로 설정함에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1차 교육과정기

제 1차 교육과정(1955년 8월 1일 제정)[2] 이후부터 제2차 교육과정 공포 이전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는 본격적인 한문교육이 시작되기 전으로, 한문은 국어Ⅱ 한문과정으로 포함되어 국어 교육의 일부로 간주

2) 문교부령 제45호(단기 4288년 8월 1일 제정) 별책 국어Ⅱ 한문과정.

www.kci.go.kr

되었다. 1차 교육과정의 한문과에서는 한학 특유의 취의(趣意)를 파악하게 하고 한학이 우리 문화에 미친 영향과 동양 문화의 연원을 인식하게 하여 건실한 인격 도야에 이바지하도록 하는데 그 의의를 두었다.[3)]

이 시기의 연구대상 고등학교 한문교과서는 7종 11冊[4)]이다. 우선 교과서 내 한문 영역 중 文・史・哲 산문의 소단원 비율과 사상류 산문 중 『論語』의 소단원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 <표 1-1>, <표 1-2>와 같다.

<표1-1> 영역별 산문 분류

	문학류	역사류	사상류	계
소단원수	39	124	113	276
비중(%)	14.1	44.9	41.0	100

<표1-2> 사상류 산문 분류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제자백가	기타	계
소단원수	17.5	19.5	1.5	2	6	66.5	113
비중(%)	15.5	17.3	1.3	1.8	5.3	58.8	100

그 특징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文・史・哲 영역 내의 소단원의 구성 비율을 보면 역사류 산문이 44.9%, 사상류 산문이 41.0%로 산문영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문학류 산문은 14.1%가 수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문학작품을 통한 정서함양이나 감수성 교육보다는 위인들의 전기나, 그들의 언행, 격언 등을 통해 교훈적인 효과를 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5)]

둘째, 사상류 산문 중에서 가장 많은 소단원 비율을 차지하는 제재는 『孟子』로 17.3%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이 15.5%를 차지하고 있는 『論

3) 김성기외 9명, 『고등학교 한문과 교육과정 해설』, 문교부, 1989, pp.104-106.

4) 金能根, 『高等 漢文 卷三』, 白映社, 1956.; 金龍培, 『高等 漢文敎本 卷二・卷三』, 金龍圖書, 1956.; 金鍾國외 1명, 『高等 漢文 卷二・卷三』, 文獻社, 1956.; 閔泰植, 『現代 高等 漢文 一』, 首都文化社 1957.; 李昌基외 1명, 『高等 漢文 卷二・卷三』, 創人社, 1956.; 車相轅, 『新編 高等 漢文 第一卷』, 文理社 1956.; 車柱環, 『高等學校 國語科 漢文 第一學年用・第二學年用』, 宇鍾社, 1956.

5) 尹澄子, 「高等學校 漢文敎科書의 通時的考察」, 경북대 교육대학원 한문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1983, p.10.

www.kci.go.kr

語』이다. 보통 한문영역의 사상류 산문 중 『論語』가 가장 많은 소단원을 설정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나, 『論語』보다는 『孟子』를 소단원으로 더 많은 수록을 하고 있다. 이는 『論語』 자체를 산문영역에서 1개 이상의 단원을 설정하기 보다는 소단원 속에서 격언 1~2 구절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論語』를 독립단원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3개의 소단원을 구성한 교과서는 2冊이며, 2개의 소단원을 구성한 교과서는 3冊이 있다. 그 밖에 산문영역에 『論語』를 수록하지 않은 교과서도 2冊이나 있다. 이는 당시의 한문과가 국어과에 속해 있어 한문 교과서에 대한 체계가 정립되지 않고, 교과체계보다는 저자의 선호에 의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넷째, 『論語』와 『孟子』에 비해 諸子百家의 비중이 현저히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당시의 사상류 산문 교육이 儒家 중심교육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2. 2차 교육과정기

제 2차 교육과정(1963년 2월 15일 공포)[6]이후부터 제3차 교육과정 공포 이전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이 시기는 1차 교육과정기와 마찬가지로 한문이 국어Ⅱ에 포함되어 있다. 2차 교육과정 시기였던 1971년도의 교육과정이 부분적으로 개정되면서 한문 교과를 독립 교과로 신설하여 '한문'이 정규 과목으로 편성되었다. 추후 3차 교육과정기의 한문교과서 집필에 영향을 준다. 또한, 한문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를 제정하여 필수적으로 지도하게 된 시기이다.

이 시기의 연구대상 고등학교 한문교과서는 13종 13冊[7]이다. 우선 교

6) 문교부령 제 121호(서기 1963년 2월 15일 공포) 국어Ⅱ 한문과정.

7) 金能根, 『人文系 高等學校 新修 漢文』, 白映社, 1968.; 金淵昌, 『高等 漢文 一卷』, 耕學社, 1967.; 金永驥외 1명, 『人文系 高等學校 標準 漢文』, 進明出

www.kci.go.kr

과서 내 한문 영역 중 文・史・哲 산문의 소단원 비율과 사상류 산문 중『論語』의 소단원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2-1> 영역별 산문 분류 <표2-2> 사상류 산문 분류

	문학류	역사류	사상류	계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제자백가	기타	계
소단원수	69	212.5	217.5	499	19	22	5.5	6.5	20.5	144	217.5
비중(%)	13.8	42.6	43.6	100	8.8	10.1	2.5	3.0	9.4	66.2	100

그 특징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文・史・哲 영역 내의 소단원의 구성 비율을 보면 역사류 산문이 42.6%, 사상류 산문이 43.6%를 차지하고 있어 1차 교육과정과 大同小異하다.

둘째,『論語』의 단원 구성 비율은『孟子』에 이어 사상류 산문 중에서 두 번째 많은 소단원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셋째, 이 시기는『論語』의 소단원 비율이 1차 교육과정과 다르게 줄어들고, 제자백가나 기타 사상류 산문이 늘어났다. 이는 1968년 12월 5일 국민교육헌장이 선포되고, 그에 따라 새 역사 창조를 위한 주체 의식과 국민윤리에 역점을 두고 이를 실천탐구 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였기 때문이다.[8] 따라서, 교육내용면에 있어서 1차 교육과정의 비체계적인 내용에 비해 체계화 되어『論語』・『孟子』중심에서 사상류 산문이

版社, 1968.; 金龍燮,『人文系 高等學校 新漢文』, 章源社, 1968.; 閔泰植,『人文系 高等學校 漢文』, 東亞出版社, 1968.; 李家源,『高等 漢文讀本 第一冊』, 海東文化社, 1966.; 李家源,『인문계 고등학교 標準 漢文』, 民衆書館, 1968.; 李來鎬,『인문계 고등학교 新制 漢文』, 一韓圖書出版社, 1968.; 李錫浩,『人文系 高等學校 標準 漢文』, 合同圖書, 1968.; 鄭炳昱외 1명,『인문계 고등학교 標準 漢文』, 신구문화사, 1968.; 鄭種孝,『인문계 고등학교 新制漢文』, 白眉社, 1968.; 車相轅,『高等 漢文 第三卷』, 文理社, 1967.; 韓榮瑄,『人文系 高等學校 標準 漢文』, 啓蒙社, 1968.

8) 홍웅선,『교육과정 신강 3판』, 문음사, 1982, p.106.

www.kci.go.kr

다양화되고 체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이전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이 시기 역시 13冊 내에『論語』가 19단원을 차지하여 평균적으로 1단원 이상의 소단원을 구성하고 있어 그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드러내었다. 그러나 13冊 중 산문영역에『論語』를 수록하지 않는 교과서가 5冊이 있으며, 반면 7개의 소단원을 구성하는 교과서도 1冊이 있어, 아직까지 교과서에 대한 체계화가 덜 되었고, 체계화라는 명목 하에『論語』를 격언의 소단원에 포함시키는 등 저자의 의도에 따라 소단원을 설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3차 교육과정기

제 3차 교육과정(1974년 12월 31일 공포)[9]이후부터 제4차 교육과정 공포 이전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이 시기는 1972년 2월 28일 한문 교과를 독립 교과로 신설되어 처음으로 한문Ⅰ과 한문Ⅱ로 나누어진 시기이다.

이 시기의 연구대상 고등학교 한문교과서는 6종 8冊[10]이다. 우선 교과서 내 한문 영역 중 文・史・哲 산문의 소단원 비율과 사상류 산문 중『論語』의 소단원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3-1> 영역별 산문 분류

	문학류	역사류	사상류	계
소단원수	57	130	90	277
비중(%)	20.6	46.9	32.5	100

<표3-2> 사상류 산문 분류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제자백가	기타	계
소단원수	10	13	5.5	6.5	7	48	90
비중(%)	11.1	14.5	6.1	7.2	7.8	53.3	100

9) 문교부령 제350호(서기 1974년 12월 31일 공포).

10) 고등한문교육연구회,『인문계 고등학교 高等 漢文』, 고등교과서주식회사, 1974.; 金永驥외 1명,『인문계 고등학교 漢文Ⅰ』, 高文社, 1981.; 김종권,『人文系 高等學校 漢文Ⅱ』, 서울문화사, 1981.; 성원경외 2명,『人文系 高等學校 漢文Ⅰ・Ⅱ』, 문호사, 1981.; 이우성외 2명,『人文系 高等學校 漢文Ⅰ・Ⅱ』, 문운당, 1981.; 장순하외 1명,『人文系 高等學校 漢文Ⅰ』, 금성출판사, 1981.

www.kci.go.kr

그 특징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전 시기의 교육과정에 비해 사상류 산문을 줄어들고, 문학류 산문은 늘어났다는 점이다. 이는 사상을 통한 교훈적인 내용보다 문학을 통한 정서함양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2차 교육과정의 교육내용의 다양화 및 체계화가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사상류 산문의 감소 속에『論語』의 자리는 2차 교육과정보다 많은 비중인 11.1%를 차지하고 있다. 소단원 구성에 있어서도 비록 교과서 편수가 8冊으로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구성단원이 10단원을 구성하고 있어『論語』에 대한 비중은 줄어들지 않았다. 사상류 산문의 감소 속에서도『論語』의 소단원이 줄어들지 않은 이유는『주역』,『공자가어』,『주자대전』 등의 기타 경자류 산문들이 題材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이 당시 각 교과서 내『論語』의 소단원 수록양상을 보면 3단원을 설정한 교과서가 1冊, 2단원을 설정한 교과서가 1冊, 1단원을 설정한 교과서가 5冊, 설정하지 않은 교과서가 1冊으로 점차 모든 교과서에『論語』를 소단원으로 포함시키고 있고, 교과서마다 소단원의 구성 비율도 비슷해져『論語』 소단원에 대한 체계가 점차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4. 4차 교육과정기

제 4차 교육과정(1981년 12월 31일 고시, 1984년 3월 1일 시행)[11]이후부터 제5차 교육과정 고시 이전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이 시기도 3차 교육과정과 마차가지로 한문Ⅰ과 한문Ⅱ로 구분된 시기이다.

이 시기의 연구대상 고등학교 한문교과서는 5종 9冊[12]이다. 우선 교

11) 문교부령 제442호(서기 1981년 12월 31일 공포).

12) 박천규외 1명,『고등학교 漢文Ⅰ・Ⅱ』, 탑출판사, 1984.1985.; 이우성외 2명,『고등학교 漢文Ⅰ・Ⅱ』, 동아출판사, 1984.1985.; 이종찬외 3명,『고등학교

www.kci.go.kr

과서 내 한문 영역 중 文・史・哲 산문의 소단원 비율과 사상류 산문 중『論語』의 소단원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 <표 4-1>, <표 4-2>와 같다.

<표4-1> 영역별 산문 분류

	문학류	역사류	사상류	계
소단원수	57	196.5	108.5	362
비중(%)	15.7	54.3	30.0	100

<표4-2> 사상류 산문 분류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제자백가	기타	계
소단원수	13.5	11	4	4	15	61	108.5
비중(%)	12.5	10.1	3.7	3.7	13.8	56.2	100

그 특징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시기에 들어서 문학류 산문은 줄어들고 역사류 산문이 늘어난다. 앞선 1차 교육과정에서 서술하였듯이 당대의 어수선한 사회에 감정의 호소보다 역사의식과 가치관 확립이 강조되어 교과에 반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사상류 산문의 비중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처음으로『孟子』보다『論語』단원 비중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시기로 향후 한문교과서들이『論語』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는 시점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이 시기에 들어서면 모든 교과서에『論語』를 1단원 이상 소단원으로 구성 하였다. 많게는 3단원을 구성한 교과서도 2冊이 있다. 앞선 3차 교육과정에 이어 사상류 산문 영역 중『論語』의 소단원의 구성비중이 계속적으로 체계화 되었다. 이는『論語』에 대한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다.

5. 5차 교육과정기

제 5차 교육과정(1988년 3월 31일 고시, 1990년 3월 1일 시행)[13]이후부

漢文Ⅰ・Ⅱ』, 어문각, 1984.1985.; 정우상외 1명,『고등학교 漢文Ⅰ・Ⅱ』, 교학사, 1984.1985.; 조두현외 3명,『고등학교 漢文Ⅰ』, 금성출판사, 1984.

www.kci.go.kr

터 제6차 교육과정 고시 이전가지의 시기를 말한다.

이 시기의 연구대상 고등학교 한문교과서는 8종 10冊[14]이다. 우선 교과서 내 한문 영역 중 文・史・哲 산문의 소단원 비율과 사상류 산문 중 『論語』의 소단원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 <표 5-1>, <표 5-2>와 같다.

<표5-1> 영역별 산문 분류

	문학류	역사류	사상류	계
소단원수	74	154	99	327
비중(%)	22.6	47.1	30.3	100

<표5-2> 사상류 산문 분류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제자백가	기타	계
소단원수	8.25	9.25	4.25	4.25	20.5	52.5	99
비중(%)	8.3	9.4	4.3	4.3	20.7	53.0	100

그 특징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시기에 들어서 문학류 산문은 다시 늘어나고, 역사류 산문은 다시 줄어들어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상류 산문의 비율은 큰 변화가 없다.

둘째, 사상류 산문의 변화가 없음에도 『論語』의 소단원 비중이 현저히 낮아졌고, 諸子百家의 소단원 비중이 급격히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상류 산문이 비로소 儒家 중심에서 탈피하여 학습 자료의 다양화 및 체계화를 통해 諸子百家의 비중을 높여 학습자에게 다방면의 수업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일 것이다.

셋째, 비록 『論語』의 소단원 비중은 감소하였지만 연구 대상 교과서인 11冊 중 9冊에서 소단원으로 설정하고 있어 여전히 사상류 산문 중

13) 문교부고시 제 87-7호(서기 1987년 3월 31일 공포).

14) 한국교육개발원, 『고등학교 漢文Ⅰ(上)・(下), 고려서적, 1989.1988.; 정우상외 1명, 『고등학교 漢文 上・下』, 동아출판사, 1990.1991.; 전형대외 1명, 『고등학교 漢文 下』, 한샘출판사, 1991.; 김용걸외 1명, 『고등학교 漢文 下』, 교학사, 1991.; 김도련외 1명, 『고등학교 漢文 下』, 교학연구사, 1991.; 이신복외 1명, 『고등학교 漢文 下』, 태림출판사, 1991.; 이응백, 『고등학교 漢文 下』, 지학사, 1991.; 류풍연외 2명, 『고등학교 漢文 下』, 웅진교과서, 1991.

www.kci.go.kr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각 교과서에 『論語』의 소단원 수가 0.5~1단원의 비중을 두어 각 교과서 내 『論語』의 소단원 비중이 비슷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6차 교육과정기

제 6차 교육과정(1992년 10월 30일 고시, 1996년 3월 1일 시행)[15]이후부터 제7차 교육과정 고시 이전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이 시기의 연구대상 고등학교 한문교과서는 11종 22冊[16]이다. 우선 교과서 내 한문 영역 중 文・史・哲 산문의 소단원 비율과 사상류 산문 중 『論語』의 소단원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 <표 6-1>, <표 6-2>와 같다.

<표6-1> 영역별 산문 분류

	문학류	역사류	사상류	계
소단원수	118	230	179	527
비중(%)	22.4	43.6	34.0	100

<표6-2> 사상류 산문 분류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제자백가	기타	계
소단원수	22	20.5	7.5	9.5	19	101.5	180
비중(%)	12.2	11.4	4.2	5.3	10.5	56.4	100

그 특징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5) 교육부 고시 제1992-19호(92.10.30).

16) 김용걸외 2명, 『고등학교 漢文Ⅰ・Ⅱ』, (주) 교학사, 1997.; 박갑수외 2명, 『고등학교 漢文Ⅰ・Ⅱ』, 지학사, 1997.; 최상익외 3명, 『고등학교 漢文Ⅰ・Ⅱ』, 금성교과서(주), 1997.; 김상홍외 2명, 『고등학교 漢文Ⅰ・Ⅱ』,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1996.1997.; 유풍연외 1명, 『고등학교 漢文Ⅰ・Ⅱ』, 주)보진재, 1996.1997.; 이지형외 3명, 『고등학교 漢文Ⅰ・Ⅱ』, 한샘출판(주), 1996.1997.; 정요일외 1명, 『고등학교 漢文Ⅰ・Ⅱ』, 재능교육, 1996.1997.; 김도련외 2명, 『고등학교 漢文Ⅰ・Ⅱ』, 교학연구사, 1996.1997.; 이희목외 2명, 『고등학교 漢文Ⅰ・Ⅱ』, (주)천재교육, 1996.1997. 이명학외 2명, 『고등학교 漢文Ⅰ・Ⅱ』, 을유문화사, 1996.1997.; 정우상외 2명, 『고등학교 漢文Ⅰ・Ⅱ』, 두산동아, 1996.1997.

www.kci.go.kr

첫째, 6차 교육과정의 산문영역의 비중은 앞선 교육과정에서의 비중과 비슷하다.

둘째, 『論語』의 소단원 구성 비중은 12.2%로 여전히 사상류 산문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2冊 중 2冊을 제외한 전 교과서에서 『論語』를 소단원으로 채택하고 있다. 『論語』의 수록이 배제된 교과서는 2冊 모두 고등학교 한문Ⅱ로 四書 보다 諸子百家에 비중을 두었으며, 같은 출판사의 한문Ⅰ에 1개의 소단원을 설정하고 있어 저자의 교과서 집필에 있어 『論語』를 중시하지 않아서가 아닌 중국 사상에 대한 순차적 교육의 의도에서 기인한 것이다.

셋째, 이 당시 각 교과서 내 『論語』의 소단원 수록양상을 보면 소단원 중 두 소단원을 설정한 교과서가 3冊, 0.5소단원을 설정한 교과서가 2冊, 단원으로 설정하지 않은 교과서가 1冊, 그 외 나머지 교과서는 1소단원을 설정하여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비슷한 비중으로 소단원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교과서 내 『論語』의 소단원 수가 점차 같아지고 있어 앞선 1,2차 교육과정의 교과서마다 다른 비체계적 수록에 대비하여, 향후 교과서에서 『論語』의 소단원 설정에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7. 7차 교육과정기

제 7차 교육과정(1997년 12월 30일 고시, 2001년 3월 1일 시행)[17]이후부터 개정교육과정 고시 이전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이 시기의 연구대상 고등학교 한문교과서는 10종 11冊[18]이다. 우선

17)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97.12.30).

18) 이명학외 3명, 『고등학교 漢文』, (주)두산, 2005.; 안재철외 2명, 『고등학교 漢文』, 대한교과서(주), 2001.; 신표섭외 7명, 『고등학교 漢文』, 대학서림, 2005.; 최상익외 3명, 『고등학교 漢文』, (주)금성출판사, 2005.; 김상홍외 3명, 『고등학교 漢文』,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3.; 유성준외 2명, 『고등학교 漢文』, (주)새한, 2004.; 김경수외 3명, 『고등학교 漢文』, (주)교학사, 2003.;

www.kci.go.kr

교과서 내 한문 영역 중 文・史・哲 산문의 소단원 비율과 사상류 산문 중『論語』의 소단원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 <표 7-1>, <표 7-2>와 같다.

<표7-1> 영역별 산문 분류

	문학류	역사류	사상류	계
소단원수	43	169	70	282
비중(%)	15.2	60.0	24.8	100

<표7-2> 사상류 산문 분류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제자백가	기타	계
소단원수	9.5	7	1.5	2	9.5	40.5	70
비중(%)	13.6	10.0	2.1	2.8	13.6	57.9	100

그 특징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처음으로 사상류 산문이 24.8%로 산문영역 중 30% 미만을 차지한다. 이는 교과내용이 사상적 原流보다 국내의 역사서와 지리서를 통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둔 결과라 할 것이다.

둘째, 사상류 산문의 큰 감소 속에서『論語』도 11冊에 9.5소단원이 설정되었다. 7차 교육과정에 들어오면서 한문과가 선택 교과로 바뀌어 학습자에게 요구하는 題材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論語』의 소단원수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상류 산문만을 놓고 볼 때『論語』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論語』의 위상이 다른 사상류 산문보다 높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셋째, 7차 교육과정은 전 한문 교과서가『論語』를 소단원으로 설정하였다. 비록 0.5소단원을 수록한 교과서가 3冊, 1소단원을 수록한 교과서가 8冊으로 평균 1소단원 비중도 차지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교과서에서 수록된 점에서 보면『論語』라는 학습제재가 두루 중시되고 있으며, 6차 교육과정에 이어 향후 교육과정에『論語』의 소단원 설정에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박갑수외 2명,『고등학교 漢文』, (주)지학사, 2005.; 이수철외 1명,『고등학교 漢文』, 정진출판사, 2003.; 이희목외 3명,『고등학교 漢文』, (주)천재교육, 2002.; 최상익외 2명,『고등학교 漢文古典』, (주)금성출판사, 2003.

www.kci.go.kr

이상 『論語』의 소단원 수용에 대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별 『論語』의 수용 양상을 보면 1, 2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체계가 없어 각 교과서별로 『論語』의 소단원 구성 폭의 비중 차이가 높았으며, 6, 7차 교육과정으로 오면서 교육과정의 체계화와 『論語』에 대한 가치인정으로 각 교과서 내 『論語』의 소단원 구성 비중이 비슷해짐을 알 수 있다.

둘째, 각 교육과정을 막론하고 전 교육과정에서 『論語』를 제재로 수용하였고, 사상류 산문 중 소단원 비중이 많게는 15.5%에서 적게는 8.8%로 평균 11.7%로 수록되었다. 이는 교과서 내에서 『論語』라는 책 한권이 한문과 교과내용으로서 얼마만큼의 가치를 말해주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수치이다.

셋째, 연구 대상 교과서의 산문 영역 소단원은 전체 2,550소단원이며, 그 중 사상류 산문이 차지하는 소단원은 34.4%로 877소단원이다. 이를 연구대상인 전체 교과서(84冊)로 평균치[19]를 계산하면 산문영역의 소단원은 약 30.4소단원을 구성하며, 그 중 사상류 산문은 약 10.5소단원을 구성한다. 또한 한 교과서 내에 『論語』의 소단원은 사상류 산문 중 11.7%로 약 1.2소단원을 구성한다. 이는 향후 교육과정에서 『論語』의 소단원 설정에 있어 객관적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교육과정이 진행해 옴에 따라 한문교과는 더욱 다양화, 체계화되고 있다. 따라서 한문교과 내용에 있어 1, 2차 교육과정에서처럼 『論語』를 한 교과서에 여러 단원으로 설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論

19) 백순근,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교육연구 및 통계분석」, 교육과학사, 2004, pp.170-171, "평균은 한 전집의 추정치로서 표집을 통하여 그 값을 계산하는 경우에 표집에 따른 변화가 가장 작은, 안정성 있는 대표치이다. 동간변인과 비율변인의 경우에는 평균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며, 분포가 정적편포의 경우도 평균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정상윤외 2명, 『통계학의 이해와 활용』, 형설출판사, 2002, pp.32-33, "평균은 차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자료의 특성을 수치화하여 나타낼 수 있으며, 통계적 추론에서 가장 적합한 역할을 한다."

www.kci.go.kr

語』의 가치를 인정하고 객관적 자료를 근거한다면 최소한 1단원의 구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Ⅲ.『論語』經文 수록에 대한 분석

이 장에서는 교육과정별로『論語』의 篇別 인용 빈도를 분석하여 각 편별 인용빈도를 알아보고, 한 교과서 내에서『論語』經文의 문장수를 산술적 자료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章別 인용빈도를 통해 인용빈도가 높은 章을 중심으로 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論語』를 교과서 내 학습내용으로 인용함에 있어서 교육용 한자와 지면상의 제약으로 한정되고 빈약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교과서에 인용함에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으며 향후 교과서 집필에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 교육과정별・편별『論語』인용 빈도수

『論語』의 교육과정별・편별 인용빈도는 다음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다. 우선 그 세부적인 내용을 교육과정별로 보면 몇 가지 두드러진 양상을 볼 수 있다. 첫째, 1차~7차 교육과정을 막론하고 전 교육과정에서『論語』를 교과서에 인용하고 있다. 둘째, 가장 많은 인용 빈도를 보이는 교육과정은 3차 교육과정이다. 또한, 3차 교육과정은 연구대상인 한문교과서가 8冊으로 다른 교육과정보다 적다. 그러나 적은 교과서와『論語』의 소단원 구성의 감소에도 인용빈도가 다른 교육과정보다 높은 것은 다양화되고 체계화되는 교과서 단원 설정 속에서『論語』의 소단원 내용을 견실히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5차 교육과정과 7차 교육과정은 각각 대상 교과서가 11冊임에도 불구하고『論語』의 인용빈도가 다른 교육과정에 비해 현저히 낮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논의하였듯이 교과

www.kci.go.kr

서 내『論語』의 소단원 설정이 평균적으로 1단원이 되지 않은 결과로 볼 수 있다.

넷째, 전체『論語』의 인용빈도는 415번이며, 한 교육과정 내에서의 인용 빈도는 약 59문항이며, 한 교과서 내에서의 평균치를 계산하면 약 4.9문항이 수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향후 교과서 집필에 있어『論語』의 소단원 내 문항 수에 대한 하나의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표 8> 교육과정별・편별『論語』인용 빈도수

교육과정 / 篇名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계 (인용수)	비중 (%)
學而	14	20	27	15	7	19	11	113	27.2
爲政	11	7	17	7	10	9	2	63	15.2
八佾	0	0	0	0	4	2	1	7	1.7
里仁	4	11	12	7	8	6	2	50	12.0
公冶長	0	0	1	1	0	1	0	3	0.7
雍也	1	2	5	4	1	3	0	16	3.9
述而	2	8	2	1	0	2	2	17	4.1
泰伯	1	5	4	2	0	1	1	14	3.4
子罕	4	2	8	3	0	2	2	21	5.1
鄉黨	0	0	0	0	0	0	0	0	0.0
先進	0	0	0	0	0	1	0	1	0.2
顔淵	2	1	8	9	5	8	4	37	8.9
子路	3	2	4	2	1	2	0	14	3.4
憲問	1	1	1	1	0	1	0	5	1.2
衛靈公	6	1	12	6	1	6	7	39	9.4
季氏	3	0	1	0	0	0	1	5	1.2

www.kci.go.kr

교육과정 / 篇名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계 (인용수)	비중 (%)
陽貨	1	0	1	1	0	1	0	4	1.0
微子	0	0	2	1	1	1	0	5	1.2
子張	1	0	0	0	0	0	0	1	0.2
堯曰	0	0	0	0	0	0	0	0	0.0
계(인용수)	54	60	105	60	38	65	33	415	
비중(%)	13.0	14.4	25.3	14.4	9.2	15.7	8.0		100

『論語』의 교육과정별・편별 인용빈도를 篇別로 보면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그 특징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가장 많은 인용 빈도를 보이는 篇은 「學而篇」이다. 전체 20편 중 27.2%를 차지하고 있어 다음으로 많은 「爲政篇」과 「里仁篇」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많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원론적 이론이 아닌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는 실천덕목의 제재와 공자 사상의 핵심적 내용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절에 설명하기로 한다.

둘째, 모든 교육과정에 거쳐 인용된 篇은 「學而篇」, 「爲政篇」, 「里仁篇」, 「顔淵篇」, 「衛靈公篇」으로 인용빈도 면에서도 이 5篇이 『論語』 20篇 중 72.7%를 차지하고 있어 『論語』 인용에 있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셋째, 모든 교육과정에 거쳐 한 번도 인용되지 않은 篇은 「鄕黨篇」과 「堯曰篇」이다. 이는 「鄕黨篇」은 공자의 행동과 생활습관을 기록하였고, 「堯曰篇」은 역대 성인의 정치이상을 주제로 하여 교과서 제재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2. 『論語』 章別 인용 빈도수

교과서 내 논어 수록 양상의 기존 연구사[20]들의 논지를 보면, 6・7차

www.kci.go.kr

한문교과서 내 『論語』의 篇別 인용빈도나 출판사별 인용빈도의 내용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만, 章別 인용빈도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는 미비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論語』의 수록에 있어 편별·출판사별 인용빈도 보다 章別 인용빈도가 저자의 의도와 학습제재로 적당한가를 알아보는데 더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論語』의 章別 인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인용빈도가 높은 章은 내용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교과서 개정에 있어 『論語』의 내용 인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표9> 『論語』 章別 인용 빈도수

篇名 / 章名	學而	爲政	八佾	里仁	公冶長	雍也	述而	泰伯	子罕	鄕黨	先進	顔淵	子路	憲問	衛靈公	季氏	陽貨	微子	子張	堯曰
1	33	4	•	1	•	•	•	•	•	•	•	11	•	•	•	•	•	•	•	•
2	9	1	•	•	•	7	•	•	•	•	•	2	•	•	•	•	•	•	•	•
3	11	6	1	•	•	•	1	•	•	•	•	•	•	•	•	•	•	•	•	•
4	10	18	4	•	•	•	•	1	•	•	•	•	•	•	•	4	•	•	•	•
5	•	•	•	12	•	•	•	1	•	•	•	•	•	3	1	•	•	•	•	•
6	17	•	•	1	•	•	1	1	1	•	•	•	1	•	•	•	•	5	1	•
7	•	4	2	•	•	•	•	•	•	•	•	7	•	•	•	•	•	•	•	•
8	5	1	•	5	2	•	•	3	•	•	•	•	•	•	1	•	1	•	•	•
9	•	•	•	2	•	2	•	•	•	•	•	•	•	•	•	•	•	•	•	•
10	•	•	•	1	•	3	•	1	•	•	•	•	•	•	•	1	•	•	•	•
11	•	9	•	•	•	•	•	•	•	•	1	1	•	•	6	•	•	•	•	•
12	•	•	•	1	•	•	•	•	•	•	•	•	•	•	•	•	•	•	•	•
13	•	1	•	•	•	•	•	5	•	•	•	•	1	•	•	•	•	•	•	•
14	16	2	•	2	•	•	•	1	•	•	•	•	•	•	•	•	•	•	•	•
15	3	6	•	7	1	•	4	•	•	•	•	•	•	•	3	•	•	•	•	•
16	9	•	•	2	•	•	•	•	•	•	•	1	•	•	1	•	•	•	•	•
17	•	7	•	1	•	•	•	1	•	•	•	10	3	•	•	•	•	•	•	•
18	•	•	•	•	•	•	•	•	1	•	•	•	2	•	•	•	•	•	•	•

20) 洪性俊, 「敎科書의 四書 受容에 關한 一 硏究」, 연세대 관리과학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석사학위논문, 1998.; 全明熙, 「高等學校 漢文敎科書에 收錄된 四書 硏究」, 조선대 교육대학원 한문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03.; 원윤숙, 「高等學校 漢文敎科書에 보이는 四書經文의 內容과 效率的 指導方案」, 공주대 교육대학원 한문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04.

www.kci.go.kr

篇名 / 章名	學而	爲政	八佾	里仁	公冶長	雍也	述而	泰伯	子罕	鄕黨	先進	顔淵	子路	憲問	衛靈公	季氏	陽貨	微子	子張	堯曰
19	•	4	•	1	•	•	2	•	•	•	•	•	•	•	•	•	•	•	•	•
20	•	•	•	•	•	•	•	•	•	•	•	•	•	•	•	•	•	•	•	•
21	•	•	•	1	•	1	8	•	4	•	•	•	•	•	•	•	2	•	•	•
22	•	•	•	•	•	•	•	•	6	•	•	2	•	•	•	•	•	•	•	•
23	•	•	•	•	•	•	•	•	6	•	•	•	2	•	9	•	1	•	•	•
24	•	•	•	5	•	•	•	•	•	•	•	3	1	•	•	•	•	•	•	•
25	•	•	•	8	•	•	•	•	•	•	•	•	•	•	•	•	•	•	•	•
26	•	•	•	•	•	•	•	•	•	•	•	•	•	•	•	•	•	•	•	•
27	•	•	•	•	•	•	•	•	•	•	•	•	•	•	•	•	•	•	•	•
28	•	•	•	•	•	3	•	•	2	•	•	•	•	•	5	•	•	•	•	•
29	•	•	•	•	•	•	1	•	1	•	•	•	•	•	7	•	•	•	•	•
30	•	•	•	•	•	•	•	•	•	•	•	•	•	•	5	•	•	•	•	•
31	•	•	•	•	•	•	•	•	•	•	•	•	•	•	1	•	•	•	•	•
36	•	•	•	•	•	•	•	•	•	•	•	•	•	1	•	•	•	•	•	•
45	•	•	•	•	•	•	•	•	•	•	•	•	•	1	•	•	•	•	•	•
계(415)	113	63	7	50	3	16	17	14	21	0	1	37	14	5	39	5	4	5	1	0

『論語』의 章別 인용빈도를 보면 101구절을 415번 인용하고 있다. 그 특징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1]

「學而篇」은 총 16章으로 이루어졌다. 그 중 1章[22], 2章[23], 3章[24], 4章[25], 6章[26], 14章[27], 16章[28]이 약 93%의 인용 빈도를 보이고 있어 「學

21) 인용빈도가 높은 구절을 중심으로 설명함.

22) 『論語』, 「學而篇」, "子曰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有朋 自遠方來 不亦樂乎 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

23) 『論語』, 「學而篇」, "有子曰 其爲人也 孝弟 而好犯上者 鮮矣 不好犯上 而好作亂者 未之有也 君子務本 本立而道生 孝弟也者 其爲仁之本與"

24) 『論語』, 「學而篇」, "子曰 巧言令色 鮮矣仁"

25) 『論語』, 「學而篇」, "曾子曰 吾日三省吾身 爲人謀而不忠乎 與朋友交而不信乎 傳不習乎"

26) 『論語』, 「學而篇」, "子曰 弟子立則孝 出則弟 謹而信 汎愛衆 而親仁 行有餘力 則以學文"

27) 『論語』, 「學而篇」, "子曰 君子 食無求飽 居無求安 敏於事而愼於言 就有道而正焉 可謂好學也已"

28) 『論語』, 「學而篇」, "子曰 不患人之不己知 患不知人也"

www.kci.go.kr

而篇」 인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1번 이상 인용되는 章은 모두 9구절이다.

1章은 모든 교육과정에서 두루 수록되어 있으며, 『論語』 전체를 통해 가장 많은 33번의 인용 빈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論語』 첫머리며 공자의 핵심 사상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개인적인 실천의 모습을 통한 사회적 실천의 모습으로 구현되는 수기치인의 모습과 군자의 모습을 통해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인 '仁'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 짧은 구절 안에서 학습자에게 공자의 사상을 다각도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章은 인용빈도가 9번으로 「學而篇」 중에 인용빈도가 비교적 낮지만, 전 교육과정에서 두루 수록되어 있는 문장이다. 이처럼 모든 교육과정에서 수록된 이유는 공자의 핵심 사상인 '仁'과 연관되며, '仁'을 할 수 있는 덕목이 '孝弟'라는 점에서 학습자가 실천 가능하며 사회에서 가장 요구되는 덕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孝悌를 통한 仁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1章의 배움을 통한 仁의 실현과 서로 통한다고 할 수 있다.

3章은 인용빈도가 11번을 보이고 있다. 仁의 측면에서 볼 때 말을 잘하고 얼굴빛만 꾸밈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仁한 者가 행하지 않음을 역설적으로 드러내어 앞선 1, 2章과 같은 선상에서 논의할 수 있다.

4章은 총 인용빈도가 10번으로 '忠信'에 관한 내용이다. 자기 자신의 진실된 마음으로 타인과의 관계 형성을 맺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본연의 마음을 지키고 스스로 경계하고 반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忠과 信이라는 마음가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쉼 없이 학문에 충실히 하여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즉, 仁의 실현인 것이다.

6章은 17번의 인용빈도를 보이고 있다. 孝悌는 인간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다. 孝悌가 지켜진다는 것은 마음속의 忠이 발현한 것

www.kci.go.kr

이다. 이는 곧 仁을 이루는 방법 중 하나이다. 글을 배우고 지식을 쌓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기본적인 본바탕이 없이는 배운 지식을 유익하게 실현하기란 어렵다. 최근의 교육 현실에 일침을 놓고 학습자에게 本末先後를 알게 할 수 있다.

14章은 인용빈도가 16번으로 전 교육과정에 많이 인용되었다. 사람에게 배고픔과 불편한 것만큼 싫은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서로 배고픔과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을 우선시 한다면 사회현실이 공존의 사회가 아닌 경쟁의 사회로 더 빠져 들 수 있다. 때문에 군자의 행동으로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제시한 것으로 이는 스스로의 수양을 통한 공부를 통하여 사사로운 욕심을 버린 후에만이 가능한 것이다.

16章은 총 인용빈도가 9번으로 군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한 例이다. 자신의 역량이 되지 않았는데도 타인에게 알려지기를 바라지 말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며, 선한 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근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부가 아닌 자신을 위한 수양 공부가 필요하다. 즉, 爲人之學이 아닌 爲己之學을 해야 한다.

「爲政篇」은 총 24章으로 이루어 졌다. 총 12구절에서 63번의 인용빈도를 보이고 있다. 그 중 4章[29], 11章[30], 17章[31]이 「爲政篇」 인용빈도의 약 54%를 차지한다.

4章은 총 인용빈도가 18번으로 『論語』 전체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용을 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이 구절은 다만 나이를 표현하는 말로만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자가 스스로 일생을 돌아보고 자신의 학문이 심화된 과정을 술회한 것으로 공자 자신의 학문 수양을 나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즉, 禮를 배우고 道를 터득하고, 德을 밝히고 性

29) 『論語』, 「爲政篇」, "子曰 吾十有五而志于學 三十而立 四十而不惑 五十而知天命 六十而耳順 七十而從心所欲不踰矩"

30) 『論語』, 「爲政篇」, "子曰 溫故而知新 可以爲師矣"

31) 『論語』, 「爲政篇」, "子曰 由誨女知之乎 知之爲知之 不知爲不知 是知也"

www.kci.go.kr

을 인식하는 학문의 진전을 단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32] 이를 통해 볼 수 있듯이 학문은 그 궁극적 목표가 단순한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내면의 性을 통한 천지만물과의 조화를 말하고 있다. 곧, 남과 내가 구별되지 않는 仁의 모습이다.

11章은 총 인용빈도가 9번이다. 스승은 사회의 모범이며 누구나 지향하는 바이다. 이 구절에서 스승은 누구나가 될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다만 '溫故知新'을 이루어야 한다. 즉, 옛 것을 잊지 않고 계속 상기시키며 새로운 것을 알아 가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범하고 있다. 학문, 기술, 운동 등 자신의 옛 모습을 익숙히 하여 그 중 잘못된 것은 고치고 새롭게 자기 발전을 시킨다면 어떤 분야에서든 스승이 될 수 있는 것이다.

17章은 총 인용빈도가 7번으로 앎에 대한 내용이다. 거짓은 거짓을 낳는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처음 안다고 하면 종래에는 더 이상 남아 있는 앎이 없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찾아 보충해야 진정한 앎이 되고 지혜가 되는 것이다.

「里仁篇」은 총 26章으로 이루어졌다. 15구절에서 50번의 인용빈도를 보이고 있어 인용된 구절 수 면에서는 가장 많다. 그 중 5章[33], 15章[34], 25章[35]이 「里仁篇」 인용빈도의 54%를 차지한다.

5章은 총 인용빈도가 12번으로 「里仁篇」 중 가장 많은 인용을 하고 있다. 부귀는 누구나 바라는 것이며 버릴 수는 없다. 다만 부귀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정당한 방법으로 부귀를 얻고 이를 타인과 함께 한다면 그 보다 좋은 것은 없을 것이다. 정당한 마

32) 이기동, 『논어강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5. pp.83-85.

33) 『論語』, 「里仁篇」, "子曰 富與貴 是人之所欲也 不以其道 得之 不處也 貧與賤 是人之所惡也 不以其道 得之 不去也 君子 去仁 惡乎成名 君子 無終食之間 違仁 造次 必於是 顚沛 必於是"

34) 『論語』, 「里仁篇」, "子曰 參乎 吾道 一以貫之 曾子曰唯 子出 門人 問曰 何謂也 曾子曰 夫子之道 忠恕而已矣"

35) 『論語』, 「里仁篇」, "子曰 德不孤 必有隣"

www.kci.go.kr

음가짐은 仁이 되고 仁한 者는 곧 군자가 된다. 앞선「學而篇」1, 2, 3章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15章은 총 인용빈도가 7번으로 공자의 핵심사상 중 하나인 '忠恕'를 말하고 있다. 내 마음에 사사로움이 없이 진심으로 남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마음이 통할 수 있다. 서로의 마음이 통하면 그 한가지로 모든 것이 통하는 것이다. 이는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仁의 모습이다.

25章은 총 인용빈도가 8번으로 德이 있는 者에 대한 내용이다. 德이란 인간이 스스로의 수양을 통해서 내면의 진심이 실천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따라서 德이 있는 者는 사사로운 욕심이나 개인의 영광보다는 타인을 먼저 위하고, 타인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고, 타인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여기므로 항상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그러므로 德이 있는 者는 외롭지 않는 것이다. 이는 곧 仁의 모습이다.

「雍也篇」은 옹야와 공자의 문답으로 시작되고 있다. 이「雍也篇」은 백성을 다스리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많다. 교과서 내에서 인용된 사례를 살펴보면,「雍也篇」은 총 28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구절이 16번 인용되었다.

그 중 2章[36]이 총 7번 인용되어「雍也篇」중 가장 많은 인용빈도를 보인다. 교과서에 인용된 부분은 '노여움을 옮기지 않고, 잘못을 두 번 하지 않는 것은 본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철저한 수양공부를 통해 자신의 내면에 사사로움 욕심이 없을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으로 제자 顔回에 대하여 공자가 이른 말이다. 따라서 공자 제자 중 顔回만이 학문을 통해 스스로를 엄격히 하였고, 공자는 학문을 좋아하는 者로 顔回만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學而篇」14章과 상응하며, 仁의 구현 방법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述而篇」은 총 37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6구절이 17번 인용되었다.

---

36)『論語』,「雍也篇」, "哀公 問弟子 孰爲好學 孔子對曰 有顔回者好學 不遷怒 不貳過 不幸短命死矣 今也則亡 未聞好學者也"

www.kci.go.kr

그 중 21章[37]이 8번 인용되어 「述而篇」 중 가장 많은 인용빈도를 보인다. 모든 일에는 善하고 不善함이 있다. 善함은 자기의 것이 되도록 배우고 익혀야 하며, 不善함은 그를 통해 자신에게도 不善함이 없는지 살펴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善과 不善 모두 내 스승이 될 수 있다.

「顔淵篇」은 총 30章으로 이루어져 있다. 8구절에서 37번의 인용빈도를 보인다. 그 중 1章[38], 7章[39], 17章[40]이 「顔淵篇」 인용빈도의 75.7%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1章은 총 인용빈도가 11번으로 「顔淵篇」 중 가장 많은 인용을 하고 있으며, 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말하고 있다. 그 방법으로 자신의 사사로움을 이겨내서 禮를 회복하는 것이다. 禮를 회복한다는 것은 곧 道를 터득하고, 德을 밝히고 性을 인식[41]하여 천지만물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곧, 남과 내가 구별되지 않는 仁의 모습이다.

7章은 총 인용빈도가 7번으로 爲政者들과 백성간의 신뢰에 대한 내용이다.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恒産과 治安이 위정자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위정자의 입장에서 보면 백성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恒産과 治安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궁극에는 恒産과 治安은 수단이 되며, 신뢰는 목적이 되니 신뢰의 중요함을 역설한 것이다. 이는 위정자가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足食, 足兵을 해야만 백성이 그를 믿는 것이지, 신뢰의 마음 없이 足食, 足兵을 이룬다고 백성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

37) 『論語』, 「述而篇」, "子曰 三人行 必有我師焉 擇其善者而從之 其不善者而改之"

38) 『論語』, 「顔淵篇」, "顔淵問仁 子曰 克己復禮爲仁 一日克己復禮 天下歸仁焉 爲仁由己而由人乎哉 顔淵曰 請問其目 子曰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 顔淵曰 回雖不敏 請事斯語矣"

39) 『論語』, 「顔淵篇」, "子貢問政 子曰 足食 足兵 民信之矣 子貢曰 必不得已而去 於斯三者 何先 曰去兵 子貢曰 必不得已而去 於斯二者 何先 曰去食 自古皆有死 民無信不立"

40) 『論語』, 「顔淵篇」, "季康子 問政於孔子 孔子對曰 政者正也 子帥以正 孰敢不正"

41) 註 32) 참조.

www.kci.go.kr

니며 신뢰 없는 足食, 足兵은 빈껍데기에 불과함을 말하는 것이다.

17章은 총 인용빈도가 10번으로 위정자의 마음가짐에 대한 내용이다. 위정자 자신의 바른 마음이 정치에 있어 최우선임을 말한 것이다. 자신이 바름에 솔선한다면 백성은 그를 신뢰하고 또한 바름으로 따를 것이다. 이는 앞선 7章과 내용면에서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衛靈公篇」은 총 41章으로 이루어져 있다. 10구절에서 39번의 인용빈도를 보인다. 그 중 23章[42], 29章[43]의 인용빈도가 각각 23.1%와 17.9%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23章은 총 인용빈도가 9번으로 남에게 선행을 하는 것은 내면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으로 타인의 기쁨을 곧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며, 행복해하는 것이다.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이나 감정이 없이 타인의 기쁨과 행복을 자신의 기쁨과 행복으로 여기며 배려하니 仁을 구하는 방법인 것이다. 그러므로 종신토록 할 만한 것이다.

29章은 총 인용빈도가 8번으로 허물에 관한 내용이다. 한 번의 잘못은 실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면 허물이 되며 종래에는 고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는「雍也篇」2章의 "不二過"의 내용과 상통한다. 곧, 학문을 통한 지속적인 수양으로 실수를 실수에서 끝낼 수 있는 것이다.

이상『論語』經文 수록에 대한 분석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論語』는 모든 교육과정에 두루 수록되었다. 특히 3차 교육과정에서 인용빈도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한문교과가 처음으로 독립교과로 신설되면서 내용이 다양화되고 체계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論語』의 인용빈도는 총 415번으로 한 교과서 내에서의 평균치를 계산하면 4.9문항이다. 이는 향후『論語』의 소단원 내 문항 수 선택에 있어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

42)『論語』,「衛靈公篇」, "子貢 問曰 有一言而可以終身行之者乎 子曰 其恕乎 己所不欲 勿施於人"

43)『論語』,「衛靈公篇」, "子曰 過而不改 是謂過矣"

www.kci.go.kr

셋째, 인용빈도가 높은 章은「學而篇」1・2・3・4・6・14・16章,「爲政篇」4・11・17章,「里仁篇」5・15・25章,「雍也篇」2章, 述而 21章,「顔淵篇」1・7・17章,「衛靈公篇」23・29章으로『論語』의 章別 인용에 54%를 차지하고 있어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비록 저자들의 선택에 의한 통계지만『論語』의 내용 중 교과서 학습내용으로써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인용빈도가 높은 章의 내용을 분석하면 대부분 '君子', '孝弟', '忠信', '實踐' 등의 내용을 통해 공자의 핵심사상인 '仁'으로 귀결된다.

다섯째,『論語』내 모든 내용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그러나 교과서 내 학습내용으로 인용함에 있어서는 교육용 한자의 제약과 지면상의 제약으로 한정되고 빈약할 수밖에 없다.『論語』를 하나의 소단원으로 설정함에 있어서 題材의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題材 설정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용빈도가 높은 내용을 위주로 선정하는 것도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Ⅳ. 結 論

한문교과에서『論語』교육의 가치와 중요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기이다. 그러나『論語』가『論語』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른 가치관의 확립과 실천의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며, 수세기에 걸쳐『論語』는 그 자체가 사상이 되고 철학이 되고 교육이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論語』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재확인하여 한문교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등학교 한문교과서 내『論語』수용양상에 대해 연구를 하였다. 이를 통하여 한문교과서 내에서『論語』의 단원구성을 체계적으로 설정하고『論語』교육의 지향점 및 지도방안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도록 하였다.

분석 결과 본고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www.kci.go.kr

첫째, 교육과정별『論語』의 수용 양상을 보면 1, 2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의 체계가 없어서 각 교과서별로『論語』의 소단원 구성 폭의 비중 차이가 높았으나, 6, 7차 교육과정으로 오면서 교육과정의 체계화와『論語』에 대한 가치인정으로 각 교과서 내『論語』의 소단원 구성의 비중이 비슷해졌다.

둘째, 각 교육과정을 막론하고 전 교육과정에서『論語』를 제재로 수용하였고, 사상류 산문 중 소단원 비중이 많게는 15.5%에서 적게는 8.8%로 평균 11.7%로 수록되었다. 이는 한문과 교과내용에서『論語』가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있는 수치라 할 수 있다.

셋째,『論語』는 모든 교육과정에 두루 수록되었다. 특히, 3차 교육과정에서 인용빈도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한문교과가 처음으로 독립교과로 신설되면서 내용이 다양화되고 체계화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넷째, 인용빈도가 높은 章은「學而篇」1・2・3・4・6・14・16章,「爲政篇」4・11・17章,「里仁篇」5・15・25章,「雍也篇」2章,「述而篇」21章,「顔淵篇」1・7・17章,「衛靈公篇」23・29章으로『論語』의 章別 인용의 54%를 차지하고 있어 비중 있게 다루어 졌다. 비록 저자들의 선택에 의한 통계지만『論語』의 내용 중 교과서 학습내용으로써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인용빈도가 높은 章의 내용을 분석하면 대부분 '君子', '孝弟', '忠信', '實踐' 등의 내용을 통해 공자의 핵심 사상인 '仁'으로 귀결된다. 따라서『論語』의 내용을 선정하는데 '仁'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題材를 택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한 교과서 내에『論語』의 소단원은 평균 약 1.2소단원을 구성하며, 문항 수는 4.9문항의 평균치를 보인다. 이는, 향후 교육과정에서『論語』의 소단원 설정에 있어 객관적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문교과 내용에 있어 1, 2차 교육과정에서처럼『論語』를 한 교과서에 여러 소단원으로 설정하고 수십 구절을 수록할 수는 없을 것이

www.kci.go.kr

다. 다만, 『論語』의 가치를 인정하고 객관적 자료를 근거한다면 최소한 1소단원의 구성과 4~5문항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본고는 한문교육이 소홀해지는 시대 상황 속에서 한문교과서 내에 『論語』를 통한 한문교육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인지시키고 『論語』의 위치를 재정립하기 위한 체계적인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향후 한문교과서에 수록될 『論語』 經文을 인용 선정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인 기초자료가 될 것이며, 추후 『論語』 교육의 방향 설정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교과서 내 『論語』 교육의 위치를 재정립하고 한문교과서 내에서 『論語』의 소단원 구성을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論語』 교육의 지향점 및 지도방안에 대한 전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고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論語』는 동양사상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유교사상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經文으로 모든 내용이 교과과정으로 수록된다 할지라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교과서 내 학습내용으로 인용함에 있어서는 교육용 한자의 제약과 지면상의 제약으로, 『論語』의 내용이 한정되고 빈약할 수밖에 없다. 또한, 『論語』를 하나의 소단원으로 설정함에 있어서 題材의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題材 설정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용빈도가 높은 내용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것도 『論語』의 구성에 있어 가치가 있을 것이다.

www.kci.go.kr

<參考 文獻>

『論語』
교육부,『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한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1.
김성기외 9명,『고등학교 한문과 교육 과정 해설』, 문교부. 1989.

金能根,『高等 漢文 卷三』, 白映社, 1956.
金龍培,『高等 漢文敎本 卷二・卷三』, 金龍圖書, 1956.
金鍾國외 1명,『高等 漢文 卷二・卷三』, 文獻社, 1956.
閔泰植,『現代 高等 漢文 一』, 首都文化社 1957.
李昌基외 1명,『高等 漢文 卷二・卷三』, 創人社, 1956.
車相轅,『新編 高等 漢文 第一卷』, 文理社, 1956.
車柱環,『高等學校 國語科 漢文 第一學年用・第二學年用』, 宇鍾社, 1956.

金能根,『人文系 高等學校 新修 漢文』, 白映社, 1968.
金淵昌,『高等 漢文 一卷』, 耕學社, 1967.
金永驥외 1명,『人文系 高等學校 標準 漢文』, 進明出版社, 1968.
金龍燮,『人文系 高等學校 新漢文』, 章源社, 1968.
閔泰植,『人文系 高等學校 漢文』, 東亞出版社, 1968.
李家源,『高等 漢文讀本 第一冊』, 海東文化社, 1966.
———,『인문계 고등학교 標準 漢文』, 民衆書館, 1968.
李來鎬,『인문계 고등학교 新制 漢文』, 一韓圖書出版社, 1968.
李錫浩,『人文系 高等學校 標準 漢文』, 合同圖書, 1968.
鄭炳昱외 1명,『인문계 고등학교 標準 漢文』, 신구문화사, 1968.
鄭種孝, 인문계 고등학교 新制漢文』, 白眉社, 1968.
車相轅,『高等 漢文 第三卷』, 文理社, 1967.
韓榮瑄,『人文系 高等學校 標準 漢文』, 啓蒙社, 1968.

고등한문교육연구회,『인문계 고등학교 高等 漢文』, 고등교과서주식회사, 1974.
金永驥외 1명,『인문계 고등학교 漢文Ⅰ』, 高文社, 1981.
김종권,『人文系 高等學校 漢文Ⅱ』, 서울문화사, 1981.

www.kci.go.kr

성원경외 2명,『人文系 高等學校 漢文Ⅰ・Ⅱ』, 문호사, 1981.
이우성외 2명,『人文系 高等學校 漢文Ⅰ・Ⅱ』, 문운당, 1981.
장순하외 1명,『人文系 高等學校 漢文Ⅰ』, 금성출판사, 1981.

박천규외 1명,『고등학교 漢文Ⅰ・Ⅱ』, 탑출판사, 1984. 1985.
이우성외 2명,『고등학교 漢文Ⅰ・Ⅱ』, 동아출판사, 1984. 1985.
이종찬외 3명,『고등학교 漢文Ⅰ・Ⅱ』, 어문각, 1984. 1985.
정우상외 1명,『고등학교 漢文 Ⅰ・Ⅱ, 교학사, 1984. 1985.
조두현외 3명,『고등학교 漢文Ⅰ, 금성출판사, 1984.

김도련외 1명,『고등학교 漢文 下』, 교학연구사, 1991.
김용걸외 1명,『고등학교 漢文 下』, 교학사, 1991.
류풍연외 2명,『고등학교 漢文 下』, 웅진교과서, 1991.
이신복외 1명,『고등학교 漢文 下』, 태림출판사, 1991.
이응백,『고등학교 漢文 下』, 지학사, 1991.
전형대외 1명,『고등학교 漢文 下』, 한샘출판사, 1991.
정우상외 1명,『고등학교 漢文 上・下』, 동아출판사, 1990. 1991.
한국교육개발원,『고등학교 漢文 Ⅰ(上)・(下)』, 고려서적, 1989. 1988.

김도련외 2명,『고등학교 漢文 I·Ⅱ』, 교학연구사, 1996.1997.
김상홍외 2명,『고등학교 漢文I・Ⅱ』,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1996. 1997.
김용걸외 2명,『고등학교 漢文I・Ⅱ』, (주) 교학사, 1997.
박갑수외 2명,『고등학교 漢文I・Ⅱ』, 지학사, 1997.
유풍연외 1명,『고등학교 漢文I・Ⅱ』, 주)보진재, 1996. 1997.
이명학외 2명,『고등학교 漢文I・Ⅱ』, 을유문화사, 1996. 1997.
이지형외 3명,『고등학교 漢文I・Ⅱ』, 한샘출판(주) 1996. 1997.
이희목외 2명,『고등학교 漢文I・Ⅱ』, (주)천재교육, 1996. 1997.
정요일외 1명,『고등학교 漢文I・Ⅱ』, 재능교육, 1996. 1997.
정우상외 2명,『고등학교 漢文Ⅰ・Ⅱ』, 두산동아, 1996. 1997.
최상익외 3명,『고등학교 漢文I・Ⅱ』, 금성교과서(주), 1997.

김경수외 3명,『고등학교 漢文』, (주)교학사, 2003.

www.kci.go.kr

김상홍외 3명,『고등학교 漢文』,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3.
박갑수외 2명,『고등학교 漢文』, (주)지학사, 2005.
신표섭외 7명,『고등학교 漢文』, 대학서림, 2005.
안재철외 2명,『고등학교 漢文』, 대한교과서(주), 2001.
유성준외 2명,『고등학교 漢文』, (주)새한, 2004.
이명학외 3명,『고등학교 漢文』, (주)두산, 2005.
이수철외 1명,『고등학교 漢文』, 정진출판사, 2003.
이희목외 3명,『고등학교 漢文』, (주)천재교육, 2002.
최상익외 2명,『고등학교 漢文古典』, (주)금성출판사, 2003.
최상익외 3명,『고등학교 漢文』, (주)금성출판사, 2005.

백순근,『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교육연구 및 통계분석』, 교육과학사, 2004.
成百曉,『論語集註』, 전통문화연구회, 1990.
원윤숙,「高等學校 漢文敎科書에 보이는 四書經文의 內容과 效率的 指導方案」, 공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尹澄子,「高等學校 漢文敎科書의 通時的考察」, 경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이기동,『논어강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5.
全明熙,「高等學校 漢文敎科書에 收錄된 四書 硏究」, 조선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정상윤외 2명,『통계학의 이해와 활용』, 형설출판사, 2002.
洪性俊,「敎科書의 四書 受容에 關한 一硏究」, 연세대 관리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홍웅선,『교육과정 신강 3판』, 문음사, 1982.

www.kci.go.kr

Abstract

*A Study of Recording Aspects of Methods used with the『Analects of Confucius』 in High School Sino-Korean Textbooks / Kim Byoung Joo**

In this manuscript, we intended to study recording aspects of the『Analects of Confucius』in high school Sino-Korean textbooks for the purpose of reshaping the『analects of confucius』according to each curriculum. In the course of events, we systematically established a small unit of the『Analects of Confucius』in Sino-Korean textbooks and intended to apply as a fundamental data for directivity and the guidance scheme to education of the『Analects of Confucius』. With consideration for this matter, in this study, we selected the 84 volumes of textbooks which contain a prose as a research object. First, we compared each unit contained proses which belong literature, history, and a sort of thoughts in each curriculum for the purpose of understanding the situation of acceptance for the small unit of the『Analects of Confucius』in Sino-Korean textbooks. Second, we grasped the relative importance for the classics of the『Analects of Confucius』unit corrected in prose of a sort of thoughts. Finally, we studied on the base of the chapters contained classics of the『Analects of Confucius』showing the high citing rate. The results are as following.

First, the aspects of acceptance for the『Analects of Confucius』in each textbook at the first and second curriculum showed a high score for the constitution of the small unit, however, in the course of the sixth and seventh curriculums the small unit constitution of the『Analects of Confucius』in each textbook was almost same. Second, to say nothing of any curriculums, all curriculums were accepted the use of the『Analects of Confucius』as a content,

* Kongju National Univ. / tjrxks@hanmail.net

www.kci.go.kr

and the relative rate of acceptance in all sorts of thoughts as a small unit showed the maximum of 15.5%, the minimum of 8.8%, and the average of 11.7%, respectively. Third, the 『Analects of Confucius』 was accepted in all curriculums, especially in the third curriculum it showed the highest citation rate. Fourth, the high citation rate was ordered as followed: 「chapter 1」(「學而篇」), 「chapter 2」(「爲政篇」), 「chapter 4」(「里仁篇」), 「chapter 6」(「雍也篇」), 「chapter 7」(「述而篇」), 「chapter 12」(「顔淵篇」), and 「chapter 15」(「衛靈公篇」). Fifth, the chapters with high citation rate of the 『Analects of Confucius』 were bring to the conclusion of benevolence through a man of honor, fidelity, andpractice. Lastly, the average small unit for the 『Analects of Confucius』 showed about 1.2 per one textbook and the average number of line showed 4.9.

As results above, the citation of the 『Analects of Confucius』 for a learning content in the textbook will be desirable, which means it should be selected by the contents according to the classified subject showed high citation rate because Sino-Korean textbook was confined by the restriction of educational Chinese character and on account of space consideration.

【Key words】 Sino-Korean textbook, curriculum, Analects of Confucius, prose

투고일 : 5월 6일, 심사일 : 5월 18일, 게재확정일 : 6월 2일

www.kci.go.kr